

한미약품, 中 블록버스터 제품 육성… 매출 1.4兆로 ‘껑충’

<지난해>

영업이익률 14.8%… 업계 최고
북경한미약품, 실적 개선 견인
이탄징 등 호흡기 질환 매출 증가
국내 원외 처방서도 시장 선도

중국 의약품 시장개척과 연구개발(R&D) 선순환 구축이 한미약품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023년 연결기준 매출 1조4909억 원과 영업이익 2207억원, 순이익 1593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22년 대비 매출은 1594억원, 영업이익은 626억원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률은 14.8%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국내 매출 증가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법인 북경한미약품의 실적 개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경한미약품은 지난 2023년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 북경한미약품의 지난 한 해 매출은 3977억원, 영업이익은 978억원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중국에서 마이코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면서 이탄징, 이안핑 등 호흡기 질환 의약품 매출이 증가했다.

‘이탄징’은 기침가래 치료 성분인 암브로솔에 기관지 확장 성분인 클렌브테롤을 복합한 소아용 시럽제로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북경한미약품 매출에서 3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침과 가래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2021년에는 연간 4500만 병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는 중국 연간 신생아수 1200만 명 대비 4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려졌다.

기침가래 ‘이안핑’은 암브로솔 성분을 중국 최초로 주사제에서 기화제로 선보인 제품이다.

또 북경한미약품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제품에는 변비약 ‘리퐁’, 어린이정장제 ‘마마아이’ 등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경한미약품은 최근 5년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일시적 생산 중단으로 매출이 감소하기도 했으나 2021년 매출 2887억원, 2022년 매출 3506억원 등으로 실적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제약기업 중 북경한미약품처럼 자체 개발한 다양한 제품을 블록버스터로 육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지난 한 해 자체 개발 제품과 혁신신약 연구개발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한미약품은 국내 원외처방부문에서만 지난 2022년 대비 10%의 성장률을 나타내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로수젯’ 매출 1788억원,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패밀리 제품군의 매출 1419억원 등으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또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 MSD에 기술수출한 대사이사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임상 2b상 진입에 따라 유입된 마일스톤도 한미약품의 호실적에 기여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독자 기술로 자체 개발해 판매하는 제품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품 매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는 ‘한국형 R&D 선순환 모델’을 매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약품의 2023년 연결기준 총 연구개발 금액은 매출액 대비 13.8%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동아에스티

비만치료제 임상1상 승인

동아에스티가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에 본격 진입했다.

동아에스티는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A-1726’의 글로벌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비만치료제로 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이번 임상을 통해 DA-1726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을 확인할 방침이다. 비만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DA-1726 글로벌 임상 1상을 올해 상반기에 개시하고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종료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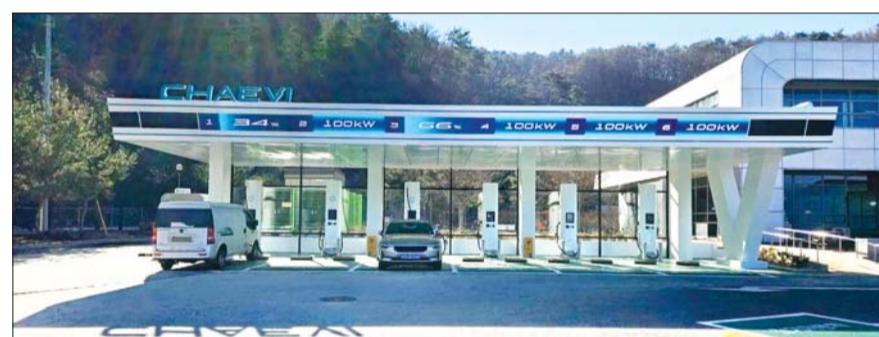
풀무원푸드앤컬처, 휴게소 방문객 위한 편의시설 개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 라운지 조성
최신식 미래형 휴게소 경험 제공
야외 휴식공간 마련·위생시설 개선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고 화장실, 쉼터 등 편의시설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운영하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경기광주휴게소(광주/원주방향), 양평휴게소(광주/원주방향) 4개 휴게소에 각각 300㎾ 초고속 충전기 2기와 급속 충전기 4기를 설치해 각 휴게소마다 전기차 6대 동시 충전이 가능하다.

구리포천고속도로 별내휴게소와 의정부휴게소에도 설 명절에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 2기, 차량 2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한 듀얼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휴게소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양평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소. /풀무원

300㎾ 초고속 충전기 1기와 급속 충전기 듀얼 4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인천/강릉방향)에는 동시 19대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다. 전기차 라운지를 조성해 충전 대기시간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의 휴식을 제공한다.

또, 안산휴게소에선 휴게소 최초 브랜드 드라이브 스루 커피전문점과 24시간 로봇 바리스타 커피 전문점, 무인 자동화 조리 로봇워, 휴게소 최초로 반

송설비를 활용한 디지털 무인배송 시스템 등 최신식 미래형 휴게소를 경험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휴게소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휴게소 야외에 넓은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였고, 휴게소 내 2층 선셋 라운지에서 로봇커피와 최신 인마의자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외 전기차 충전소는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순천방향) 5기, 함안휴게소(부산방향) 8기,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휴게소(대구방향) 4기, 현풍휴게소(부산방향) 4기, 동해고속도로 외동 휴게소(울산방향) 8기, 중부내륙고속도로 영산휴게소(마산방향) 5기,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천안방향) 2기, 이서휴게소(순천방향) 2기,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전주방향) 6기, 오수휴게소(광양방향) 5기,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천지휴게소 3기, 당진영덕고속도로 공주휴게소(당진방향) 6기, 공주휴게소(대전방향) 6기가 설치되어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위생 시설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기광주휴게소(광주방향)는 노후된 고객 화장실 리뉴얼을 통해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했다. 안산휴게소(인천방향)는 자연 친화적 인테리어와 최신식 고급 편의시설로 쾌적한 화장실을 자랑한다. 지난 해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금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니스프리, 日서 플래그십 스토어 열어… 해외 시장 확장

무한한 가능성의 섬 주제

고효능 자연주의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글로벌 매장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지난 2일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를 새롭게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니스프리 도쿄 오모테산도 플래그십 스토어’는 무한한 가능성의 섬을 주제로 한 이니스프리의 첫 글로벌 매장이다.

대자연의 무한한 에너지를 추구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개척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국내에서도 서울 성수에 ‘이니스프리 디 아일 성수’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는 일본 도심 속에서 마주하는 대자연을 표현하기 위해 1층 입구 벽면에 ‘시그니처 오브제’를 설치했다. 단단한 바위를 뚫고 자라나는 강인한 대자연의 힘과 생명력을 연출했다는 것이 이니스프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컨베이어 벨트형 진열대 위에 ‘그린티 씨드 히알루론산 세럼’을

전시하고 이니스프리 그린티의 원료와 기술력을 설명하고 있다.

2층은 1층의 디자인과 연결된 공간이다. 초록빛 조명 계단을 따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레일형 쇼케이스가 있어 이니스프리가 일본에서 선보이고 있는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니스프리 글로벌 모델인 세븐틴 민규는 지난 1월 31일 ‘오모테산도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했다. 매장을 둘러보고 제품을 살펴보며 현지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청하 기자



‘이니스프리 도쿄 오모테산도 플래그십 스토어’ 전경. /이니스프리

롯데마트

고품질 한우, 최대 40% 할인

롯데마트와 슈퍼는 전국 매장에서 고품질 한우를 최대 40% 할인에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오는 7일까지 ‘일반한우 정육 1등급 국거리·불고기용(100g)’ 전품목을 3490원에, ‘한우 1등급 등심 구이용(100g)’은 7990원에 판매한다. 채끝이나 안심, 부채살과 같은 ‘한우 1등급 구이용(100g)’은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추가로 롯데마트와 슈퍼는 오는 5일부터 맛과 품질을 모두 개선한 ‘신선을 새롭게’ 한우 캠페인을 전 점 축산코너, 방송 매체를 활용해 고객에게 알릴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